치유·평안·화합의 봉축燈 밝혔다

봉축위, 4월 2일 광화문서 점등식
미륵사지 석탑 원형…5월 6일까지
"연대와 자비로 다시 하나되길"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불기2569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치유 · 평안 · 화합의 미륵사지탑 등' 점등식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됐다. 사진=연등회보존위원회

불기 2569(2025)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치유·평안·화합의 미륵사지탑 등(燈)'이 서울 광화문광장을 밝혔다.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와 연등회보존위원회는 4월 2일 광화문광장에서 점등식을 개최했다. 본격적인 점등식 행사에 앞서 동참자들은 산불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재민을 위로하고 희생자를 추모하며 묵념의 시간을 가졌다.

'치유·평안·화합의 미륵사지탑 등(燈)'에는 등불이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지는 치유의 빛이 되고, 불안한 일상에 평안을 전하며 서로 다른 이들이 함께 어우러져 화합하기를 바라는 염원이 담겼다. 국보 '익산 미륵사지 석탑'을 원형으로 해 실제 석탑의 약 70% 크기(높이 19.5m, 좌대 포함)의 전통 한지 등으로 제작됐다. 백제 미륵신앙이 담긴 탑의 이상향과 자비·평화의 상징성을 '치유·평안·화합'의 메시지로 풀어냈다는 게 봉축위원회 측의 설명이다.

점등식에서 봉축위원장 진우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점등사에서 갈등과 대립을 넘어 화합과 연대의 길을 찾길 강조했다. 스님은 올해 등(燈)의 원형인 천년의 익산 미륵사지 석탑을 떠올리며 "돌 하나하나에 깃든 장인의 정성과 불심이 결국 석탑을 다시 세웠듯이 우리 사회도 연대와 자비로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때로 불안을 느끼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부처님 가르침처럼 우리는 본래 하나의 빛이며 서로를 비추고 온기를 나눌 때 더욱 밝아질 수 있다"면서 "점등식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다시금 따뜻한 연대와 공존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축사에서 먼저 정치인으로서 극한 대립과 갈등을 막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한 마음을 전했다. 오 시장은 "이제는 분열과 갈등을 봉합하고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할 때"라며 "세상의 평안을, 마음의 자비를 염원하는 올해의 봉축표어가 더욱 가슴 깊이 와닿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자비무적(慈悲無敵)'을 강조하며 "자비심을 가득 채우면 마음의 평안이 온다는 부처님 가르침을 되새기면서 서로를 조금 더 용납하게 되는 세상이 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발원문 낭독에서 관음종 부원장 도각 스님은 "오늘 밝혀지는 이 전통등 불빛으로 상처입은 국민들의 마음을 치유해 평안을 구하고 분열과 갈등을 극복해 모두가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는 대화합의 세상이 열리길 간절히 기원한다"면서 "과거 천년을 등불로 삼아 마음의 평화 속에 부처님 세상에서 새로운 미래 천년을 준비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발원한다"고 축원했다.

반세기 만에 나투신 청담 대종사…사리 친견 특별전

5월 29일까지 청담기념관서
태원 스님 "대종사 열반 추모"
6월 초 사리탑 이운 봉안 예정


도선사 주지 태원 스님과 조계종 종회의장 주경 스님 등 내빈들이 전시 작품을 둘러보고 있다.

도선사 중창조인 청담 대종사(1902~1971)의 사리를 친견할 수 있는 특별전이 5월 29일까지 삼각산 도선사 청담기념관에서 열린다. 사리탑을 재조성하기 전 진행하는 한시적 공개로, 청담 대종사의 법신 사리를 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청담문도회(운영위원장 도호 스님)와 서울 도선사(주지 태원 스님)는 3월 30일 호국참회원 2층 교육관과 청담기념관에서 '반세기 만에 나투신 청담대종사 展' 개막식을 개최했다. 이번 전시는 청담 대종사 사리탑 주변 정비 불사 과정에서 수습한 대종사의 사리와 함께 대종사의 일생과 향후 건립될 사리탑을 사진으로 미리 만나볼 수 있도록 기획됐다.

도선사는 1973년 건립한 청담 대종사 사리탑이 50여 년 세월이 지나며 퇴락함에 따라 2023년 12월 대종사 사리탑과 석상 주변에 대한 보수정비 불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오염과 부식, 지반 침하 등으로 해체 복원이 불가피하자 사리탑을 2024년 4월 1일 해체했다. 1973년 봉안했던 청담 대종사의 사리함과 사리, 지석 등이 반세기 만에 모습을 드러내자 사리를 수습해 청담기념관으로 임시 이운했다.

청담 대종사의 사리를 친견할 수 있는 이번 전시는 크게 5부로 기획됐다. 1부 '대종사 열반에 드시다'는 대종사의 열반과 다비 이야기를, 2부 '대종사의 사리탑을 세우다'에서는 고성 옥천사와 문수암, 서울 도선사 등 인연 도량의 사리탑을 살펴볼 수 있다. 3부 '대종사, 다시 세상에 나투시다'는 사리탑 보구 과정이 사진으로 소개됐다. 4부 '대종사 사리친견'에서는 전시회의 하이라이트인 대종사의 사리와 사리함 실물을 만나 볼 수 있다. 마지막 5부 '사리탑을 새롭게 복원하다'는 새롭게 복원하고 있는 사리탑을 미리 살펴볼 수 있게 구성됐다.

도선사 주지 태원 스님은 "대종사의 영결식·다비·사리탑 건립 등 사진 자료 공개를 통해 열반을 추모하고자 한다"면서 "뜻깊은 청담대종사 사리 친견 법석인 만큼 사부대중의 많은 관심과 관람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리 친견은 3월 31일부터 5월 29일까지 오전 10시~오후 3시 가능하다. 매주 금요일은 휴관이다. 사리는 특별전 공개 후 6월 초, 사리탑에 이운 봉안될 예정이며 사리탑주 정비 불사는 12월 말 경 회향 예정이다.

임은호 기자

개인 현실문제 해결 돕는 '2.0 명상페스티벌' 열린다

목우선원 · 명상상담평생교육원
4월 12일~5월 6일 온오프라인서



개개인은 누구나 크고 작은 문제를 안고 살아간다. 스트레스와 불안, 인간관계 등 그 형태도 다양하다. 현대인들이 겪는 갖가지 고민을 해결하고 치유하기 위해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명상 축제가 마련돼 주목된다.

목우선원(선원장 인경 스님·사진) 명상상담대학원과 한국명상상담평생교육원이 4월 12일부터 5월 6일까지 '제11차 2.0 명상페스티벌'을 개최한다. 목우선원 선원장 인경 스님 등은 4월 1일 서울 인사동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행사 일정과 주요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행사는 '개인 현실문제 해결'을 주제로 온오프라인에서 진행된다.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명상과 상담을 통해 자신을 되돌아보고 성찰하는 5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개인별 명상심리상담-적극적 건강을 향하여' '온라인 강연회 1-마음을 다스리는 상담기술' '온라인 강연회 2-명상을 통한 마음치유의 길' '실내명상체험마당' '야외명상활동'이 포함됐다.

인경 스님은 "진짜 건강한 것은 '병이 없다' '허약하지 않다'가 아니다.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하다'는 적극적인 모습을 말한다"며 "몸과 마음이 웰빙한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상담을 통해 나에게 솔직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인경 스님은 "우리 사회가 국내외 안팎으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팍팍한 현실에서 개개인들도 각자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페스티벌이 실질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배우고, 그 과정을 직접 실습해 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사 신청은 4월 11일 저녁 7시 30분까지 명상상담평생교육원 홈페이지(http://www.medicoun.com)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된다. 02-2236-5306

김내영 기자

동국대 열린전공학부 불교동아리 '무념무상' 창립

4월 1일 정각원서 창립법회 봉행
돈관 스님, 기금 1000만원 전달



올해 신설된 동국대 열린전공학부에 새로운 불교동아리가 창립됐다. 이로써 동국대는 서울캠퍼스와 와이즈캠퍼스에 24개의 불교동아리가 활동하는 명실상부한 대학생 전법의 중심 대학이 됐다.

동국대(총장 윤재웅)는 4월 1일 교내 정각원에서 열린전공학부 불교동아리 '무념무상' 창립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사장 돈관 스님은 불교동아리 창립을 '집을 짓는 것'에 비유하며 "열린전공학부 불교동아리 '무념무상'이 올해 새로 창립된 만큼 24채의 집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힘차게 활동하는 동아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재웅 총장은 "열린전공학부 신입생이자 불교동아리에 가입한 여러분들을 환영한다"고 인사했다.

김시완 열린전공학부 불교동아리 초대 회장은 동아리의 활동 목표를 "학우들이 전공을 확정하기 전 불교의 가르침과 문화를 경험하고 지혜를 쌓는 것"이라고 밝히며, "진리에 대한 논설방식이 시대에 따라 변모했듯이, 대학생들이 불교를 자칫 고리타분하거나 가볍게 접하지 않도록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돈관 스님은 이날 창립법회에서 불교동아리 활성화 기금 1000만원과 상월결사 불교동아리 창립지원금 100만원을 함께 전달했다.

신중일 기자

청년 대상 '선명상 템플스테이 특별 주간'

문화사업단, 4월 20일까지
20~30대 청년 1만원에 체험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만당 스님, 문화사업단)이 4월 7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선명상 템플스테이 특별 주간'을 운영한다.

조계종이 4월 1일부터 5월 5일 부처님오신날까지를 '불교의 달, 마음 평안의 달'로 정해 다채로운 행사를 펼치는 것과 연계한 행사다.

이번 특별 주간은 전국 47개 선명상 템플스테이 시범운영 사찰에서 선명상 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청년 2500여 명에게 참가비를 할인해주는 이벤트다. 내·외국인 20~30대 청년(1986년~2006년생)이면 참가비 1만원으로 선명상 템플스테이를 경험할 수 있다.

선명상 템플스테이에서는 참선을 포함해 걷기명상, 좌선명상, 호흡명상, 소리명상, 차명상, 싱잉볼명상 등 다양한 선명상을 체험할 수 있다.

문화사업단장 만당 스님은 "학업 및 직장생활의 스트레스로 고통받는 많은 청년이 선명상 체험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찾아 자신의 삶을 용기 있게 살아갈 바란다"고 말했다.

참가 신청은 템플스테이 공식 홈페이지(www.templestay.com)에서 가능하다.

김내영 기자

캄보디아 어린이에 교복·책가방 지원

비로자나국제선원, 기증식 성료



비로자나국제선원이 캄보디아 어린이들에게 교육 물품을 지원했다.

비로자나국제선원(주지 자우 스님)과 (사)로터스월드(이사장 성관 스님)는 3월 25일 캄보디아 꺼우깍-비로자나 초등학교에서 교복·책가방·체육복 기증식을 진행했다.〈사진〉 기증식에는 학교장과 전교생, 지역 공무원, 로터스월드 센 나렌(Sen Naren) 프로젝트 매니저 등이 참석했다.

전교생을 대표해 발언한 4학년 소반나 보파(Sovanna Bospa) 학생은 "비로자나국제선원에서 학교를 세워주고 매년 교복과 학용품까지 지원해 주신 덕분에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었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꺼우깍-비로자나 초등학교는 2022년 4월 비로자나국제선원의 후원으로 개교해 203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박수현 수습기자

한중일불교우호교류회의 10월 북경서

3월 26일, 삼국 예비회의 개최



제25차 한중일불교우호교류회의가 '초심을 잊지 말고 미래를 함께 열어 나아가자-새로운 한·중·일 삼국 불교의 친선교류'를 주제로 10월 18~20일 북경에서 개최된다.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와 중국불교협회, 일·중·한국제불교교류협의회는 3월 26일 중국 안후이성 안칭시에서 '제25차 한중일불교우호교류회의 중국대회를 위한 3국 예비회의'를 개최하고 대회의 공식 주제, 장소와 시기 등을 최종 합의했다.〈사진〉

한국 측 단장 진호 스님(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총장, 원융종 총무원장)은 "30년간 한중일 불교계가 깊은 유대를 지속해 온 것은 우리 불교계 사부대중 모두의 자랑"이라며 "이러한 성과는 한중일 불교우호교류회의를 통한 우의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김내영 기자

대불청·(주)골드헬스케어, '동행' 업무협약

포교 · 나눔 실천으로 상호협력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이길수, 대불청)와 ㈜골드헬스케어가 3월 31일 서울 전법회관 지하 1층 선운당에서 '동행' 업무협약을 진행했다.〈사진〉

협약에 따라 이들은 건강검진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포교와 나눔 실천 사업을 통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박경태 ㈜골드헬스케어 대표는 "향후 대불청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겠다"며 △자비런-나눔걷기 마라톤 △카페 선-선을 행하는 카페 △정진사업-침향단, 통이보감, 생식, 대체육 등 △만해의꿈-합창제, 산사음악회, 뮤지컬, 불교축제 등 △골드팜스-복지사업 등을 추진하고 발생한 사업수익으로 대불청의 재정자립과 복지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내영 기자

어린이·청소년 찬불가 경연대회 열린다

불레협, 제33회 연꽃노래잔치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회장 혜장스님)가 불기 2569(2025)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찬불가 경연대회인 제33회 전국 어린이·청소년 연꽃노래잔치를 개최한다.

만 4세 이상부터 16세 이하 어린이와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찬불가 1곡을 선정(합창은 지정곡 포함)해 독창, 중창, 합창 부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접수는 4월 30일까지다. 예선은 독창만 진행하며, 동영상으로 접수해 심사한다.

예선을 통과한 독창 참가자와 중창, 합창 참가팀은 5월 24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리는 본선에 진출한다. 본선 진출자는 5월 12일에 발표된다.

김내영 기자